



1<sup>st</sup> Week, September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6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오영훈, 도정질문, 고시, 기본계획, 발언, 기초자치단체
경제·관광	추석, 소상공인, 현무암, 상승, 여행, 관광객
지역·사회	기본계획, 고시, 건설, 오영훈, 추석, 예방

※ 분석 기간 : 9월 2일~9월 6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오영훈	-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요청 -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도정질문	- 의료공백 사태 대응 - 제2공항 건설 관련
	고시	- 제2공항 건설사업 고시 - 의료공백 대응 고시
	기본계획	-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발언	- 도의회 발언 논란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법정률제도 포기 가능성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추석	-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난 - 추석 상여금 지급 감소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 추석 명절 소상공인 매출 확대
	현무암	- 현무암 활용 산업 활성화 - 현무암과 관광 연계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 - 감귤 생산량 증가
	여행	-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강화 - 추석 연휴 관광 트렌드
	관광객	- 추석 기간 관광객 소비 증가 - 무장애 관광 활성화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기본계획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갈등 - 탄소중립 계획 수정 요구
	고시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발표 - 공설 장사시설 추가 조성 고시
	건설	- 제2공항 건설 찬반 갈등 - 공공시설 건설 추진
	오영훈	-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 -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추석	- 추석 연휴 특별 관리 대책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예방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중국 일부 지역에서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 이는 수소 산업 육성 및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그러나 초기 비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
- ✓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해 5대 분야에서 20개 주요 조치를 발표함. 제도 개선, 자원 이동 촉진, 혁신 분야 발전, 국제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 무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 ✓ 하이난은 2024년 9월부터 면세 화장품에 전자 라벨 시범 시행을 시작함. 전자 라벨은 주요 성분, 제조 업체 등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 스캔 가능함.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으며,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
- ✓ 톈진시는 유학생 창업 지원을 위해 18가지 조치를 발표함. 주요 내용은 자금 지원, 인큐베이션 플랫폼 구축, 인재 유치 활동 등을 포함하며,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8,800만 원)의 창업 자금 지원 가능
- ✓ 저장성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 상공업자 서비스의 달’ 과 ‘대기업-소상공인 지원’ 행사를 개최하며, 17개 부처가 협력하여 정책 홍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6가지 주요 활동을 추진함.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2027년까지 1,000개 대기업이 10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

###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 부담금을 인하할 계획임. 이는 주요 수입국인 인도와 중국에서 팜유 수요가 감소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구체적인 인하율은 아직 미정

## ○ 필리핀

- ✓ 필리핀 재정부는 UNDP와 협력해 국내 기후재정 전략을 수립 중이며, 영국과 캐나다의 지원을 받아 기후 금융 네트워크와 AGCF 프로젝트를 통해 행동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이 전략은 기후 행동에 자원을 동원하고, 공공 지출 통합, 민간 투자 유도 등을 목표로 함.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대출도 확보
- ✓ 필리핀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최소 4명이 사망하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발표함. 정부는 업무 및 수업 중단 등 긴급 조치를 계획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 중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알리바바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부문 강화에 나섬. 알리바바닷컴은 연수 프로그램과 '핵심 전자상거래 리더 어워드'를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중이며, MATRADE가 시상식을 지원함.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전자상거래 허브로 성장 중이며, 2024년 초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약 1,311억 5,000만 링깃 기록

## ○ 일본

- ✓ 홋카이도는 공무원의 이직 방지를 위해 'lon1 미팅'과 학습 환경 개선을 추진 중임. 2022년 홋카이도청 퇴직자는 2017년 대비 59% 증가하여, 약 100개의 스킬업 강좌를 마련하고 일부 수강료를 보조함. 삿포로시는 인사 이동 불만을 줄이기 위해 "캐리어 오픈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중
- ✓ 홋카이도는 2023년도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777만 명으로 집계됨. 도외 관광객은 25% 증가해 505만 명에 이르렀으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10% 적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임. 숙박객은 19% 증가한 1,551만 명, 외국인 관광객은 약 3.4배 증가한 234만 명 기록

- ✓ 히로사키시는 아오모리현 최초로 1인 1박당 200엔의 숙박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연간 약 1억 2천만 엔의 세수를 예상함. 숙박세는 법정의 목적세로, 관광 자원 강화와 관광객 수용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
- ✓ 사이타마현은 물류비 상승과 드라이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 대기업 및 관공서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물류 확보를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함. 주요 대응책으로 물류 효율화, 재배달 감소, 디지털 전환, 납품 기간 확보 등이 포함
- ✓ 치바시는 2026년도에 전력 소비로 인한 CO2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설정함. 새 청소 공장의 가동으로 폐기물 발전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과 재생 가능 에너지 구매를 통해 전력의 100%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예정
- ✓ 나가노현은 2026년 4월부터 호텔과 여관 숙박자에게 “관광 진흥세“를 도입해 세계 수준의 산악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임. 아베 지사는 숙박세 수익을 교통 및 관광지 디지털화에 중점 배분할 예정이며, 리피터 증가와 체험형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자치단체와의 과세 조정과 교부금 이관 등도 검토 중
- ✓ 카가와현과 효고현은 공동 개발한 “양현 순회 투어“를 소개하며,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협력을 재확인함. 투어 코스에는 히메지성, 마루가메성 방문과 세토 내해의 풍경을 즐기는 고급 숙소 체류 등이 포함됨. 해외 부유층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 여행사와의 상담도 진행 중임. 양현은 사이클 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박람회 프리 이벤트와 간사이 파빌리온에서 공동 이벤트를 계획 중

## Contents

---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9월 2일~9월 6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806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317건, 경제·관광 분야 184건, 지역·사회 분야 305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 소리, 헤드라인제주
- 317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오영훈, 도정질문, 고시, 기본계획, 기초자치단체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요청</li> <li>· 오영훈 제주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요청함</li> <li>-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li> <li>· 제주도의 의료 소외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li> </ul>
	도정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공백 사태 대응</li> <li>· 오영훈 제주지사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함</li> <li>- 제2공항 건설 관련</li> <li>· 제주 제2공항 건설의 기본계획 고시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음.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li> </ul>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건설사업 고시</li> <li>·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정부에 의해 고시되었으며, 2034년 본격 이륙을 목표로 추진 중임</li> <li>- 의료공백 대응 고시</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관련 내용이 고시될 예정임</li> </ul>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li> <li>·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공항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으로 예정됨.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절차가 예정되어 있음</li> <li>-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으며,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함</li> </ul>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회 발언 논란</li> <li>·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질문 중 지적 수준을 거론하며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함</li> </ul>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li> <li>·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임</li> <li>- 법정률제도 포기 가능성</li> <li>·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특별자치도 재정 안전판인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포기를 검토하고 있음</li> </ul>

- 184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추석, 소상공인, 현무암, 상승, 여행, 관광객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추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난</li> <li>· 제주 중소기업의 77.1%가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음.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이 꼽힘</li> <li>- 추석 상여금 지급 감소</li> <li>· 제주 중소기업 중 54.1%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이는 지난해 대비 7.7% 감소한 수치임</li> </ul>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며, 농협, 기업,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총 27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함</li> <li>- 추석 명절 소상공인 매출 확대</li> <li>·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한시적으로 두 배로 올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li> </ul>
	현무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무암 활용 산업 활성화</li> <li>· 제주특별자치도는 현무암을 건축 자재 및 조경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원 활용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li> <li>- 현무암과 관광 연계</li> <li>· 현무암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독특한 지형과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인기임</li> </ul>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물가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6% 상승하였으며, 특히 배,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li> <li>- 감귤 생산량 증가</li> <li>· 2024년 노지감귤 생산량이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평균 착과수가 늘어난 결과임</li> </ul>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강화</li> <li>· 제주관광공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제주 팸투어를 진행하며,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있음</li> <li>- 추석 연휴 관광 트렌드</li> <li>·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제주의 제과점과 테마파크가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며,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방문이 증가하였음</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 기간 관광객 소비 증가</li> <li>·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29만 명으로, 관광객의 총 소비금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함</li> <li>- 무장애 관광 활성화</li> <li>· 제주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두를 위한 제주 여행상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관광약자도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li> </ul>

○ 305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기본계획, 고시, 건설, 오염훈, 추석, 예방, 어린이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갈등</li> <li>·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됨. 반대 측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찬성 측은 조속한 추진을 강조함</li> <li>- 탄소중립 계획 수정 요구</li> <li>·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과 개선을 촉구함</li> </ul>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발표</li> <li>·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도민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음. 주민투표를 통한 공정한 결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li> <li>- 공설 장사시설 추가 조성 고시</li> <li>· 서귀포시는 기존 자연장지가 만장 예상됨에 따라 추가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할 계획임</li> </ul>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항 건설 찬반 갈등</li> <li>·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찬성 측은 공항 건설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음</li> <li>- 공공시설 건설 추진</li> <li>· 제주도는 친환경 공설 장사시설의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li> </ul>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li> <li>·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예정임</li> <li>-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li> <li>·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li> </ul>
	추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 연휴 특별 관리 대책</li> <li>·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 동안 추모공원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정리와 환경 정비 등의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함</li> <li>- 소상공인 지원 정책</li> <li>· 추석을 맞아 제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보증과 금융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li> </ul>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li> <li>· 제주특별자치경찰단은 딥페이크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학교에서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 중임</li> <li>-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li> <li>· 제주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중국

○ 중국 다수 지역에서 수소차 통행료 면제, 수소차 활성화 지원

-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지린성과 산시성은 각각 2024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산둥성, 쓰촨성, 내몽골 어얼뒤쓰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수소 산업 발전과 국가의 수소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수소차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면제 정책은 시범적으로 2~3년 동안 시행되며, 통행료를 직접 면제하거나 사후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수소 산업 육성과 수소차 보급 촉진이 있으며, 수소는 청정 에너지로 21세기 가장 유망한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수소차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운송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수소차의 보급은 현재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어, 내몽골의 한 물류 회사는 수소차 도입을 통해 연간 약 200만 위안의 통행료를 절감하고 있으며, 쓰촨성은 수소 버스 및 수소 물류 차량을 다수 운영 중임. 그러나 수소차의 초기 비용과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충전소 확대와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임

\* 출처: 人民日报海外版

○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주요 조치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대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분야에서 20개의 주요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의견을 발표함. 첫째, 서비스 무역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 둘째, 자원 요소의 효율적인 국경 간 이동 촉진, 셋째, 국제 운송, 여행 서비스, 전문 서비스 등의 주요 분야에서 혁신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됨
- 특히, 국제 운송 서비스의 강화, 수소차, 항공권 확대, 데이터의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촉진, 기술 성과 거래의 최적화 등의 조치가 강조됨. 이 외에도 전문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외국인 인재의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해 중국의 서비스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포함됨
  - 또한, 서비스 무역의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글로벌 서비스 무역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대일로” 국가 및 기타 다자 협력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방 자원의 특성을 살려 국제 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등의 전략이 제시됨

\* 출처: 央视新闻客户端

### ○ 하이난, 면세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 시행

- 하이난은 2024년 9월 1일부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전자 라벨 시범 시행을 시작함. 이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하이난성 약품감독관리국은 이를 위해 전자 라벨을 통한 제품의 중국어 라벨 표기 방식을 도입했음. 시범 기간 동안에는 전자 라벨과 전통 라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전자 라벨은 화장품의 주요 성분, 제조 업체, 원산지, 유효 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됨.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용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하이난의 면세 화장품은 45개 카테고리 중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품목이며, 기존에는 종이 라벨을 사용하여 많은 정보와 넓은 부착 면적이 필요했음. 새로운 전자 라벨은 작은 크기와 편리한 부착, 풍부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과 상품 유통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하이난성 상무청은 이번 전자 라벨 시범 운영을 통해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출처: 中国新闻网

○ **텐진, 유학생 창업 지원 위한 18가지 조치 발표**

- 텐진시는 최근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학생 귀국 창업 및 신생산력 발전 지원 조치》를 발표하여 18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주요 내용은 자금 지원 확대, 인큐베이션 플랫폼 구축, 인재 유치 활동 개최 및 창업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함. 이를 통해 우수한 유학생이 텐진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자금 지원 측면에서, 유학생이 텐진에서 창업할 경우 개인 창업 보증 대출은 최대 30만 위안, 소기업 창업 보증 대출은 최대 400만 위안까지 지원 가능함. 잠재력 있는 기업은 30만 위안, 초기 창업 기업은 20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지원 계획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100만 위안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텐진시는 또한, 유학생 창업 관련 플랫폼 및 박사 후 연구기관, 각종 혁신 연합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최대 50만 위안의 지원금과 박사 후 연구기관 설립 시 3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함. 아울러, 해외 인재 모집, “해외 인재 텐진 방문”, “하이허 인재” 혁신 창업 대회 등의 상징적인 인재 유치 활동을 통해 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국가 및 시 차원의 주요 인재 프로젝트 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출처: 中国新闻网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저장성, 다부처 협력으로 소상공인 경제 지원 강화**

- 저장성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3회 ‘개인 상공업자 서비스의 달’ 및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돕는’ 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계획안을 발표함. 이번 행사는 개인 상공업자의 문제 해결과 발전 촉진을 목표로, 저장성 시장 감독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처가 협력하여 진행되며, 정책 홍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포함한 6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 저장성 내에는 약 694만 개의 개인 상공업자가 있으며, 이는 전체 경영 주체의 3분의 2를 차지함.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부처가 개인 상공업자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시장 감독국은 개인 상공업자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지원, 품질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창업 지원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하며, 기타 관련 부처들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돕는’ 특별 행동은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1,000개의 대기업이 10만 개의 소상공인과 협력할 계획임. 이를 통해 기술, 자금, 금융, 법률, 관리 등의 다방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영 부담을 줄이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임

\* 출처: 中国新闻网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부담금 인하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현재 톤당 55~240달러의 팜유 수출부담금을 인하할 계획임. 이 조치는 대두유 및 해바라기유와의 경쟁에서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가격 우위를 되찾기 위한 방안임
- 이번 부담금 인하 계획은 주요 수입국인 인도와 중국에서 팜유 수요가 감소한 상황을 반영한 것임. 구체적인 인하율과 세부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소농민들은 수출세 인상이 야자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2024년 상반기 팜유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li> </ul> <p>* 출처: The Edge Malaysia, Energy News</p>
필리핀	<p>○ 필리핀 재정부, UNDP와 국내 기후 재정 전략 수립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재정부는 국내 기후재정을 위한 종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개발계획(UNDP)과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청과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후 금융 네트워크(CFN)와 녹색 및 기후 금융 가속화(AGCF)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li> <li>- 기후재정 전략은 기후 행동 사업에 자원을 동원하고, 국가 개발 의제에 공공 지출을 통합하며, 기후 친화적 혁신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필리핀 환경자원부와 기후변화위원회 회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계획을 참고할 예정임</li> <li>- 필리핀 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했음</li> </ul> <p>* 출처: Business Mirror, UNDP</p>
	<p>○ 필리핀 대통령, 산사태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에서 남서 계절풍과 열대성 폭풍 엔텐그(Yagi)로 인한 폭우가 발생해 산사태로 최소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함</li> <li>- 마르코스 대통령은 폭우로 인한 업무 및 수업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며, 현재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수업 중지 조치를 조율 중이라고 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대기지리천문국(Pagasa)은 엔텐그가 카시구란에 상륙해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하며, 다양한 지역에 열대성 저기압 정보 신호를 발령함.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해상 상황 악화로 여러 항구에서 수천 명의 승객이 체류 중이라고 밝힘</li> </ul> <p>* 출처: Business Mirror, The Express Tribune</p>
<p style="text-align: center;"><b>말레이시아</b></p>	<p>○ <b>말레이시아, 알리바바와 전자상거래 부문 협력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알리바바닷컴(Alibaba.com)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함</li> <li>- 알리바바닷컴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 최고 공급업체 간 지식 교류를 목적으로 '핵심 전자상거래 리더 어워드(KEL Awards)'를 개최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가 시상식을 지원함. 이 시상식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성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평가됨</li> <li>- 말레이시아는 활발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부문의 주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자상거래 부문 수출액은 약 1,311억 5,000만 링깃(약 4조 500억 원)을 기록함</li> </ul> <p>* 출처: Bernama, The Star</p>
<p style="text-align: center;"><b>일본</b></p>	<p>○ <b>홋카이도, 공무원 리스킬링으로 이직 방지하는 홋카이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홋카이도에서는 공무원의 이직 방지를 위해 관리직과 부하직원 간의 “1on1 미팅“을 시도하고 있음. 2022년도에는 홋카이도청의 자기 사유 퇴직자가 862명으로, 2017년도 대비 59% 증가했음. 이에 따라 홋카이도와 삿포로시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직장 내</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소통 증진 방안을 추진 중임

-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3%가 '자발적인 공부와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음. 이에 홋카이도는 약 100개의 스킬업 강좌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강료의 일부를 보조해 새로운 지식 습득을 장려하고 있음.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 조직 차원의 리스킬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알리고자 하고 있음
- 삿포로시는 인사 이동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캐리어 오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직속 부서의 과장에게 직접 PR 시트를 제출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했음. 이외에도, 육아 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출처: 日経速報ニュース

### ○ 홋카이도, 2023년도 관광객 수 13% 증가

- 홋카이도는 2023년도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777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특히 도외 관광객은 25% 증가한 505만 명으로, 도내 관광객 증가율(8% 증가)을 상회했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로는 여전히 10% 적은 수준이지만, 도외 관광객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이번 집계는 관광청의 기준에 따라 홋카이도가 정한 방침을 기반으로 추산한 것임. 한 명의 관광객이 여러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숙박해도 한 명으로 계산하는 '실인원수'를 집계했음. 일일 관광객은 3,2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숙박객은 19% 증가한 1,551만 명이었으며,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은 약 3.4배 증가한 234만 명에 달했음
- 지역별로는 삿포로, 오타루, 니세코 등 주요 관광지를 포함하는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도오권과 하코다테 중심의 도난권, 아사히카와와 후라노를 포함한 도호쿠권의 숙박 수가 2019년을 넘어서며 전반적인 증가세를 견인했음. 반면, 도카치(9% 감소), 구시로·네무로(14% 감소), 오토츠크(8% 감소) 등 일부 지역은 관광 회복에 차이를 보였음

\* 출처: 日経速報ニュース

### ○ 히로사키시, 숙박세 도입 검토: 1인 1박당 200엔

-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는 현내 최초로 숙박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검토위원회는 1인 1박당 200엔의 세액을 포함한 숙박세의 방향에 대한 답신서를 제출했음. 시는 연간 약 1억 2천만 엔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도 후반 도입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임
- 숙박세는 시내 호텔과 여관 등의 숙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의 목적세로서 자치단체가 용도를 정해 징수함. 확보된 재원은 네푸타 등 기존 관광 자원의 매력 향상, 관광객 수용 환경 정비, 국내외 정보 발신 등에 사용할 예정임. 답신서에 따르면 숙박 시설에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는 징수액의 3.5%로 정해졌음
- 향후 시는 사업자 설명회와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임. 또한, 국과의 협의 및 공지 기간도 필요할 것임.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100엔을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40%를 차지

\* 출처: 日経速報ニュース

### ○ 사이타마현, 물류 확보를 위한 공동 선언 효율화 및 재배달 감소 추진

- 사이타마현은 물류비 상승과 드라이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 대기업 및 관공서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물류 확보를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효율적인 물류 운영과 재배달 감소를 목표로 관계자들과 협력해 각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델 케이스를 구축할 계획임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사이타마현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선언은 대기업 물류 회사인 야마토 운수, 사가와 익스프레스 등과 관공서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임. 주요 대응책으로는 상거래 관행의 재검토, 디지털 전환(DX) 추진, 적절한 납품 기간 확보 등이 포함되며, 드라이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및 노동 단체와 협력해 인재 확보 및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재배달 감소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물류 문제 개선을 위해 화주와 운송 사업자가 협력하는 “화이트 물류“ 운동을 추진 중이며, 사이타마현 내에서도 참여하는 사업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이타마현은 과거 원재료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가격 협상 지원 도구를 개발하여 각지의 대응에 기여한 바 있음. 물류 문제에서도 유효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출처: 日経速報ニュース

### ○ 치바시, 2026년도 CO2 배출 실질 제로 달성 목표

- 치바시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6년도에 전력 소비에 따른 CO2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청소 공장의 가동으로 폐기물 발전 비율을 높이고, 도쿄전력과 개발 중인 전력 수요·공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함
- 치바시는 2022년에 환경성의 “탈탄소 선행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30년도까지 민생 부문 CO2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음. 현재 시유 시설의 CO2 배출 실질 제로 전력 비율은 9%에 불과하지만, 2026년도에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주요 원인은 세 가지로, 2026년에 새 청소 공장이 가동되며,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발전하는 능력이 강화됨. 연간 약 1만 6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시유 시설에 '자기 타송'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5억 엔을 절감할 수 있음. 또한, 시유 시설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여, 특히 배출량이 많은 남부 정화센터에 태양광 설비를 가동해 자체 소비에 활용할 계획임
- 이외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력 전환을 추진하여 2026년도 시유 시설의 전력 구성은 청소 공장에서의 자기 타송 30%, 시내 태양광 발전 20%, 재생 가능 에너지 구매 50%로 이뤄질 예정임. 이를 통해 연간 약 6만 8천 톤의 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日経速報ニュース

### ○ 나가노현 아베 지사, 숙박세로 교통 및 디지털화에 중점 배분

- 나가노현은 2023년 관광지 이용자가 8,014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8,601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관광지 소비액은 3,087억 엔으로 2019년을 넘어섰음. 나가노현은 2026년 4월부터 호텔과 여관 숙박자에게 “관광 진흥세(가칭)”를 도입할 계획을 밝힘. 아베 지사는 나가노 관광 발전을 위해 현민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일정 부담을 요청하고자 하며, 세계 수준의 산악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나가노현 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숙박세 도입을 검토 중임. 아베 지사는 현과 시정촌 간의 합의를 통해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독자 과세에 대해 현의 세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도입 시 예상되는 과세는 현과 시정촌 간의 과세 비율 및 금액 조정과, 다른 도도부현의 숙박세와 달리 일정 부분 재원을 시정촌에 교부금으로 이관하는 것임
- 앞으로 나가노현의 관광 정책은 리피터 증가와 체험형 관광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럽과 미국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 이차 교통 수단 확보 및 관광지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임. 아베 지사는 세계 수준의 관광지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통 및 디지털화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함

※ 출처: 日経速報ニュース

### ○ 효고·카가와, “양현 순회 투어” 공동 개발

- 카가와현과 효고현은 3일 “효고·카가와 연계 회의”를 개최하여, 양현이 공동 개발한 순회 투어를 소개하고, 2025년 국제 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음. 이번 회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6개의 코스가 설정된 순회 투어는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음
- 투어 코스에는 세계유산이자 국보인 히메지성(효고현 히메지시)과 “돌담의 성”으로 알려진 마루가메성(카가와현 마루가메시)을 도는 코스, 세토 내해의 풍경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고급 숙소 체류 코스 등이 포함됨. 해외의 부유층 관광객 유치에 위해 외국 여행사와의 상담도 진행 중임
- 또한, 사이클 투어리즘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효고현의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효고현 남아와지시와 도쿠시마현 나루토시를 잇는 오나루토 대교에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세토 내해 연안 일주 루트 “세토이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가와현의 이케다 도요토 지사는 “다카마쓰시의 아지 반도에 핵심 사이클링 루트를 만들고 주요 관광 자원으로 삼겠다”고 화답했음
- 박람회를 앞두고, 카가와현은 10월 JR 다카마쓰역 앞에서 개최하는 프리 이벤트에 효고현이 참여하는 데 합의했으며, 효고현이 박람회장 간사이 파빌리온에 설치할 “효고현 존”에서 양현이 공동 이벤트를 펼치기로 합의했음

※ 출처: 日経速報ニュース